

지난 27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장교들이 임석상관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국민에게 신뢰받는 육군의 리더 되겠습니다”

육군장교 통합임관식

학사사관 70기·간부사관 46기 407명
항일의병장 후손·다자녀 엄마 등 눈길
“순국선열·호국영웅 정신 이어갈 것”

육군은 지난 27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는 학사사관 70기와 간부사관 46기 등 총 407명이다. 이들은 지난 넉 달 동안 전술학, 전투기술학, 군사학 등 교육훈련과 임관종합평가를 거쳐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고창준(대장)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주관한 임관식에는 가족, 친지, 총동문회, 교직원 등 3200여 명이 참석해 신임장교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정효훈 소위에게 돌아갔다. 황보선호 소위는 국무총리상, 김성환·전준호 소위는 국방부장관상, 유욱재 소위는 합동참모의장상, 전훈민 소위는 한미연합군사령관상, 최어진·이인환 소위는 육군참모총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고창준(맨 왼쪽)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신임장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수상자 외에도 신임장교들의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오도열 소위는 항일의병장의 후손이다. 그의 외증조부는 1908년 전남 나주·화순 일원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했고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그의 부친도 학사 25기로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다.

오 소위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군인의 꿈을 키워왔으며, 병사로 전역 후 장교로 임관하면서 2개의 군번을 가지게 됐다. 그는 “외증조부님과 아버지가 지킨 우리나라를 이제는 내가 지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복수국적을 포기하고 재입대한 사례도 있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장대현 소위는 부모님의 권유로 병사로 의무복무를 마쳤다. 군생활을 하는 동안 큰 보람을 느낀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가 되고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임관했다.

‘다자녀·부부군인·3개 군번’이라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신임장교도 있다. 이다은 소위는 세 자녀의 엄마이자, 부부군인이다. 남편 김용수 상사는 현재 50보병사단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 소위는 해병대·육군 부사관을 거쳐 육군장교로 임관하면서 3개의 군번을 가진 주인공이 됐다.

고 직무대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군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육군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

“선배들이 바다 지켜온 것처럼…자유·평화 수호 주역 될 것”

해군병 714기 수료식

국가유공자 후손 등 1295명 배출
“우리 바다 굳건히 지키는 주역 되길”

해군교육사는 지난 27일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해군병 714기 수료식을 열고 1295명의 정예 해군병을 배출했다.

해군병 714기는 지난달 26일 입영해 5주 동안 체력단련, 전투행군, 야전교육, 소형고무보트(IBS), 전투수영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거쳐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다.

강정호(중장) 교육사령관이 임석한 가운데 기초군사교육단장이 주관한 수료식은 국민의례, 필승구호 제창, 상장·특별상 수여, 축사, 소감문 낭독,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을 본격적으로 거행하기에 앞서 수료자의 가족들이 정모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27일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열린 해군병 714기 수료식에서 해군병들이 필승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 제공=윤승호 하사

특히 해군교육사는 수유실, 장애인화장실, 거동불편자 배려석 등을 운영해 참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 피복 전시와 군악대 공연 등 식전행사를 마련해 홍보의 장으로 삼았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임종수(갑판) 이병이 해참총장상, 김승범(일본어학) 이병은 교육사령관상, 장재규(손상통제) 이병은 기초군사교육단장상을 수상했다.

특이한 이력을 지닌 해군병들도 눈길을 끌었다. 서정현 이병 등 5명의 국가유공자·참전용사 후손들이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게 됐고, 김정빈 이병 등 3명의 수병은 해군 현역으로 복무 중인 아버지와 함께 조국의 바다를 수호한다.

강 사령관은 축사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육과 훈련을 잘 마치고 늠름하게 수료한 해군병 714기 모두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며 “수많은 해군 선배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온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714기 해군병들은 해군교육사 예하 학교에서 특기별 교육을 받은 뒤 각 부대에 배치된다. 조수연 기자



지난 27일 해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66기 해군·해병대 준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 제공=홍성민 하사

“필승해군·호국충정 해병대 건설에 앞장”

해군·해병대 준사관후보생 임관식

해군 91명·해병대 11명 총 102명
1·2연평해전 참전 베테랑 등 ‘화제’

해군교육사령부(교육사)가 지난 27일 부대 연병장에서 강정호(중장) 사령관 주관으로 66기 해군·해병대 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준사관 102명(해군 91명·해병대 11명)은 지난 9일 해군 장교교육대대에 입단했다. 이들은 3주 동안 사격, 준사관의 역할, 해군 기본교리, 작전계획, 예산관리, 해군·해병대 주요 정책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으며 군사 전문지식과 직무 수행 능력을 함양했다.

임관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수료증·상장 수여,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참모총장 축전 낭독, 사령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해군참모총장상은 강태진(갑판) 해군준위, 해병대사령관상은 이광윤(보병) 해병준위, 교육사령관상은 김민준(손상통제) 해군준위, 기초군사교육단장상은 홍창기(조리)·하용균(잠수) 해군준위, 해병대교육훈련단장상은 박익균(전기) 해군준위가 각각 수상했다.

화제의 인물도 다수 나왔다. 김두성(병기) 해군준위는 제1·2연평해전에 참전한 베테랑이자, 아들이 무장병으로 해군에 복무 중인 해군 가족이다. 김 준위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고속정 병기장으로 참전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김덕우(특전) 준위는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 교민 구출작전 등 다양한 실전을 경험했다. 강대승(군사경찰) 준위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300회 이상 헌혈한 나눔의 아이콘이며, 김민준(기관) 준위는 32개 자격증을 보유한 기관 분야 최고 전문가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축전을 통해 “준사관의 상징인 찬란한 금빛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직하게 흘려온 땀과 노력의 결실이자, 실력과 신뢰의 상징으로 각자의 분야에 있어 명실상부 해군·해병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라며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필승해군과 호국충정 해병대 건설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관한 66기 준사관들은 해·육상 부대에 배치돼 새로운 신분과 직위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 해양 수호에 앞장선다. 조수연 기자



지난 27일 공군교육사령부 최용덕관에서 열린 제114기 준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준사관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 제공=정준혁 하사

“공군 근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공군 준사관후보생 임관식

핵심 전력 이바지·전문성 입증
최정예 전문가 255명 탄생

공군교육사령부는 지난 27일 부대 최용덕관에서 손석락(중장) 사령관 주관으로 ‘제114기 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총 255명의 준사관이 탄생했다.

임관식은 공군 각급 부대 준사관 대표를 포함한 주요 내빈과 임관자 가족 및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 증서 및 상장 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공군교육사령관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관한 255명의 신임 준사관들은 지난 9일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단해 3주간 국방 및 공군 정책 이해, 항공 우주력 발전 비전, 미래전의 양상 등의 교육을 이수했다. 또 MZ세대의 특성 이해와 팀워크 증진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교육 등을 받고 최정예 준사관으로 거듭났다.

손 사령관은 훈시에서 “준사관은 최정예 요원으로서 전문성을 상징하는 계급”이라며 “공군의 근간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와 국민, 공군에 기여하는 준사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준사관에게 수여하는 공군참모총장상은 서경민(항공기기체정비) 준위가 수상했다. 교육사령관상은 박종규(항공기기체정비) 준위, 기본군사훈련단장상은 곽민수(항공기기체정비) 준위, 기본군사훈련전대장상은 김종완(광역전송체계정비) 준위가 각각 받았다.

이날 임관식에는 화제의 인물도 많았다. 허효범 준위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F-35A 초도도입 시 무장계통 도미교육을 모두 수료해 공군 핵심 전력 배치와 안정화에 이바지했다. 박제홍 준위는 대한민국 60번째 항공기관기술사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항공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해 전문성을 입증한 베테랑이다. 조수연 기자